

# 세계의 배꼽,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so@naver.com

“아하, 이제 충분하도다, 작은 책이여!  
나는 모든 길을 거쳐 세계의 배꼽에 도착  
했으므로”

로마시인 마르티알리스(Martialis)의 시구를 인용해 언어학자 웬디 브라질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계의 배꼽이라 일컬었다. 이 도서관은 가히 삼라만상의 진리를 아우르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구현한 지식과 장서의 집결지였다.

## 사라진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창건자인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계승자, 프톨레마이오스 1세에 의해 BC 295년경에 창설됐다. 이 도서관과 장서들은 몇 차례 위기를 겪고 결국 4세기 때 불타버렸지만 600년 가까이 서구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



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미궁 같은 도서관의 원형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그 당시 무려 70만권의 책을 소장했을만큼 엄청난 규모였다고 한다. 새로운 이슬람 점령자 칼리프 오마르는 그 책들을 도시의 목욕탕 연료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것을 모두 태우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전한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자체가 사람·물건·사상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교역의 중심지이자 모든 종교가 사이좋게 병존했던 ‘세

유례없는 대도서관의 건립은 모든 역사서, 위대한 문헌, 희곡 작품, 당대의 수학 및 과학 논문을 수집하여 건물 하나에 보관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계의 배꼽'이었다. 이집트를 무력 정복한 알렉산드리아와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로 추진한 이 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지리적 특성 덕분에 명실공히 지식의 집결지가 되었고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고, 동서간 학문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 세관에서는 이 도시를 들고나는 모든 배에서 나온 서책을 거둬들여 필사시켰고, 때로는 원본을 되돌려주지 않기도 하면서 책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고 한다.

유례없는 대도서관의 건립은 모든 역사서, 위대한 문헌, 희곡 작품, 당대의 수학 및 과학 논문을 수집하여 건물 하나에 보관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지식을 총합하여 과학, 예술, 부, 경제의 증진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거의 완벽하게 그러한 목표에 도달했다. 도서관은 단순히 두루마리를 수집해 놓은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더 야심찬 계획을 수행하는 곳이 되었다. 그것은 문화제국주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관이 되었고, 공간속의 공간, 다양한 아이덴티티의 집합소, 미셸 푸코의 용어를 빌리면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조직 속의 다른 공간)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철학·수학·천문학·의학 등 모든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학문연구기관이자 국왕의 정책 자문기관이었으며, 일종의 대학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헌학자들은 소장도서를 목록화했을 뿐 아니라 판본을 가려내고 또 번역, 해석해서 출판하기도 했다. 인문학자들의 일터이며 출판사, 연구소의 기능을 모두 포괄했던 것이다.

구약성서의 원형인 《셈투아긴타》와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등 인류 지식문명의 고전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창시자 에우클레이데스, 그리스 최고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천동설로 유명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파로스 등대를 설계한 소스트라투스 등이 모두 알렉산드리아가 배출한 학자들이다.

### 지식의 분류체계와 권력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식과 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학문을 전수받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분류는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변형하며 이용하는 능력이자  
이성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근대의 산물이다.



정복지역의 피정복민을 다스리려면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알아야한다고 생각했다. 통제와 지배의 일차적 목적을 위해 도서관을 건립했던 것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중세 수도원, 바티칸, 영국 국립 도서관 등 시대를 아우르는 광대한 도서관의 역사는 권력의 지배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구축한 도서관과 서책은 공격과 약탈, 방화의 주된 희생물이 되었다.

사실 도서관과 박물관은 무한을 집적하는 시간의 헤테로토피이다. 한 장소에 모든 시간, 모든 시대, 모든 형태, 모든 취향을 두고자 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간의 외부와 부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변의 한 장소에서 시간의 영속적이고 무한정한 축적을 이루고자 한 욕망이며, 이러한 축적의 관념은 근대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알렉산

드리아 도서관은 단순한 고대 도서관이 아니라 근대적 아이디어다. 이 도서관은 그 규모로도 유명하지만 도서관의 관리와 분류체계, 사서의 역할로도 유명하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서였던 칼리마코스는 종합적인 서지목록 《피나케스》를 통해 '모든 학문분야에서 명성을 날린 사람들과 그들의 저서 120권으로 분류한 분류표'를 남기기도 했다.

정보량이 증가할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정보 분류다. 분류 방식은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인간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바뀔 수 있다. 분류는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즉 하나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분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다는 뜻이다.

지식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백과전서》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시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베이컨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한 사례였다. 베이컨은 자연에 관한 모든 자료가 수집, 분류, 도표화된 다음에야 그로부터 결론이 나올 수 있고 또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학문의 진보》에서 지식의 획득과 축적은 이성의 안내를 따르며 사회의 진보는 지식의 진보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지식은 다른 사람에 대한



## 온라인 알렉산드리아

권력이기 이전에 사물에 대한 권력이어야만 했다. 지식을 분류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한 체계 안에 모두 담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지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결국 분류는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변형하며 이용하는 능력이자 이성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근대의 산물이다. 이 분류체계 속에 포함되지 못한 서적과 지식, 이분들은 분류체계라는 권력에 의해 사장되었고, 외전으로 혹은 전설로 남아있다. 에코는 《장미의 이름》에서 아드소의 말을 빌려 도서관은 인간의 헛된 노력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기술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주를 헛되이 통제하고 이해하려 든다는 것이다. 도서관과 도서관의 사서들은 진리라는 잘 구축된 인공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주위를 온갖 정교한 논문들로 둘러싼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헛되이 생각한다. 그들은 오만한 자존심을 지식을 독점하고 신격화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를 넘어 포스트모던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무한한 정보의 바다 웹의 분류방식은 어떨까. 웹 정보 분류도 초창기에는 오프라인에서처럼 주제별 분류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하이퍼링크는 선형적인 분류 방식에 맞지 않는다. 즉 웹은 주어진 목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웹 문서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를 통한 정보 접근이 아닌 검색을 통한 직접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보 검색은 어떤 질의에 대해서 그 질의와 유사한 문서집합을 찾는 작업이다. 데이터를 분류할 때 키워드를 사용하며 검색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말들은 불용어로 분류해 처리한다. 따라서 정보 검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 따라 질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순환적 구조를 취한다. 물론 인터넷 정보는 키워드 검색과 별개로 여전히 주제별로도 분류되고 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는 축소된 형식의 주제별 분류가 남아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채택하는 주제별 분류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사용자가 많이 보는 항목이 상위 범주로 채택될 뿐이다.

오히려 태그(tags:꼬리표) 기능을 활용한 동적인 정보 분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동일

우리시대의 도서관은 우주다.

보르헤스의 말대로 “도서관은 끝없이 순환한다”.

한 주제어를 포함한 문서를 그때그때 재구성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10진 분류법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전문 지식인 분류체계라면 태그는 이용자들이 만든 분류체계다. 이용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글, 사진, 영상, 음성에 태그를 달기 시작한다. 처음 하나의 태그는 의미가 없지만, 태그가 모이면 그 의미가 커진다. 태그들이 하나둘 모여감에 따라 이제는 전문가가 분류해주지 않아도 태그로 인하여 자동 분류가 이루어진다. 하나의 키워드에 서로 다른 태그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분류가 된다. 태그에 의한 분류는 하나의 체계적인 계통 분류가 아니라 무한히 다양한 분류체계를 이룬다. 물론 간편하고 자유로운 대신 체계성이나 완결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의 정보가 고정된 체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분류체계가 근대의 발명품이라 해도 이제는 인터넷의 어마어마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집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웹 정보는 하루밤이 지나면 700만 페이지가 늘어난다고 한다. 국내에서만도 1500만 페이지 이상. 그러나 웹페이지의 평균수명은 44일, 디지털 자료의 평균 수명은 70여일에 불

과하다고 한다.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장서화와 함께 웹을 디지털 아카이브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는 디지털 유산을 집적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구글과 야후 같은 온라인 기업과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포드 등 저명한 교육기관의 사서들은 수십만 권의 책을 스캔하여 비트로 바꾸느라 분주하다. 국내에서도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일명 오아시스(Online Archiving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책들과 정보는 지식과 인간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전 우주적인 도서관에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디지털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디지털 장서화한 새로운 알렉산드리아는 더 이상 화재로 소실되거나 침략자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마벨의 도서관(The Library of Balel)』이라는 단편소설에서 우주를 도서관이라고 상상했듯이 우리시대의 도서관은 우주다. 보르헤스의 말대로 “도서관은 끝없이 순환한다”. 